

부산과학기술상 부산대 이재광 박상후 교수 수상 영광

- 오는 13일 벅스코 부산과학축전 개막식서 시상, 부산국제고 안윤영 과학교사상 차지



부산대
이재광 교수



부산대
박상후 교수



부산국제고
안윤영 교사

올해 부산과학기술상 수상의 영광은 부산대 이재광(물리학과) 교수와 박상후(기계공학부) 교수에게 돌아갔다. 또 과학교사상은 부산국제고 안윤영 교사가 차지했다.

부산과학기술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조영래 부산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열린 심사 결과, 과학상 부문에 이 교수, 공학상 부문에 박 교수를 각각 선정했으며 안 교사를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와 박 교수는 부산과학기술상과 함께 상금 1000만 원씩을 받으며, 안 교사 역시 상과 500만 원의 상금을 받

게 된다.

과학상 수상자인 이 교수는 복잡다양한 양자현상들의 발현 메커니즘을 원자 수준에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촉매, 접합계면 최적화 응용성을 제시한 탁월한 연구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학상의 주인공인 박 교수는 나노스케일 초정밀 3차원 적층제조 공정기술 국내 첫 개발을 비롯해 SCI급 논문 134편에 특허등록 56건 등 왕성한 연구실적으로 수상에 이르게 됐다.

과학교사상을 받는 안 교사는 학교 과학동아리 지도 및 과학 인재 육성 활동은 물론이고 과학대중 강연자로도 적극 나서는 등 지역 과학교육 발전과 과학문화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부산과학기술상은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지역 과학기술인력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켜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자극제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부산과학기술상 시상식은 '2024년 부산과학축전' 행사 일환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부산 해운대구 벅스코 제1전시장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부산과학기술상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장〉

조영래 부산대 교수

〈1차 심사위원〉

강준 한국해양대 교수, 김나리 인제대 교수, 김영한 동아대 명예교수, 김일 부산대 교수, 손근용 인제대 교수, 안진우 경성대 교수, 이상호 고신대 명예교수, 정중현 부경대 명예교수, 최진규 전 센텀고 교장, 황정훈 부산과학고 교장

〈2차 심사위원〉

권기룡 부경대 교수, 신병철 동의대 교수, 윤태훈 부산대 명예교수, 이복을 부산대 석좌교수, 이영호 한국해양대 명예교수, 이재욱 동아대 명예교수, 정성오 전 부산시교육청영재교육진흥원장, 정찬규 사직고 교장

제12대 차정인 강남훈 이수태 공동이사장 체제 출범

- 3월 21일 정기이사회서 류동근 해양대 총장 신임 이사, 강춘진 신임 사무처장 선임도



지난 3월 2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이사회 및 CTO평의회 총회'에 참석한 이사 및 CTO회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기관 제12대 임원진이 새롭게 출범했다. 3인 공동이사장에는 기존 차정인 부산대 총장과 강남훈 국제신문 사장에다 이번에 CTO평의회 의장이 된 이수태 (주)파나시아 회장이 동참했다. 또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이 신임 이사, 강춘진 전 국제신문 수석논설위원이 상임이사 겸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지난 3월 21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 41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2024년 정기이사회에서 공동이사장인 차정인 총장, 오형근 CTO평의회 의장(대한제강(주) 부회장)을 비롯, 이사인 하운수 부산시교육감, 한수환 동의대 총장,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 등 30여 명의 이사 감사 및 CTO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제12대 임원진 구성안이 통과됐다.

이날 가결된 임원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형준 부산시장, 하운수 교육감 등 당연직 이사 10명과 함께 CTO 추천

된 일반 이사로 이수태 회장과 이상준 (주)화인 회장, 김동건 (주)동화엔텍 대표이사 등 모두 13명의 기존 이사가 연임됐다.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은 지난 2월 13일 전임 도덕회 총장에 이어 취임해 당연직 이사 자동승계 규정에 따라 연임 대상이 됐다. 당연직 이사 자리인 국립부산과학관 관장의 경우 제12대 임기가 시작되는 4월 17일 전인 4월 11일 현 김영환 관장 임기가 끝나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된다.

여기에 임기가 끝나는 남차우 상임이사 겸 사무처장 후임으로 강춘진 전 수석논설위원을 정하면서 총 이사 수는 18명에서 한 자리가 줄어 17명이 됐으며 국립부산과학관 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당분간 16명 이사 체제로 운영된다.

2인 감사로는 종전의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원장과 최영식 전 고신대 복음병원장이 연임돼 우리 기관을 위해 앞으로 2년 더 활동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진 구성과 함께 지난해 27억2백만 원의 결산과 함께 올해 25억9천2백만 원 예산안 승인도 있었다.

이 같은 안건 심의 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민영 과학문화정책팀장이 나서 PPT를 중심으로 지난해 학교 밖 풀뿌리 과학체험장인 '생활과학교실' 사업, 과학문화거점센터 운영 성과와 함께 오는 13, 14일 열리는 제23회 부산과학축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회의 말미에는 2년간 CTO평의회를 원만히 이끌어온 오형근 제11대 CTO 의장과 지난 8년간 기관 업무를 총괄해온 남차우 사무처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있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제12대 CTO평의회 의장에 이수태 회장, 부의장에 이인환 (주)지비라이트 회장으로 짜여진 임기 2년의 새 의장단 구성이 오형근 의장과 이채운 간사(리노공업(주) 회장)의 천거로 사전 선출됐다.

정기이사회 참석자 명단

▷ 공동이사장 : 차정인 부산대 총장, 오형근 CTO평의회 의장(대한제강(주) 부회장)

▷ 이사 : 하운수 부산시교육감, 한수환 동의대 총장,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 이수태 (주)파나시아 회장, 이상준 (주)화인 회장, 김동건 (주)동화엔텍 대표이사

▷ 감사 :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최영식 전 고신대 복음병원장

▷ CTO 회원 : 임병문 (주)성신신소재 회장, 이채운 리노공업(주) 회장, 김현상 (주)길평 회장, 이제훈 한국선재(주) 대표이사, 장명주 에스엔케이(주) 대표이사, 이인환 (주)지비라이트 회장, 배도정 한비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상기 (주)유주 대표이사, 김종오 (주)펠릭스스텍 대표이사

▷ 분과위원장 : 조영래(부산대 교수) 과학문화혁신위원장, 신병철(동의대 교수) 과학정책연구위원장, 고미자(전 부산시 청년산학협업국장) 산학연발전위원장

▷ 기타 : 김광희 부산시 경제부시장

제23회 부산과학축전, 13~14일 벅스코서 열린다

– 제1전시장서 ‘부산에 과학이 산다’ 주제
지·산·학 3개 테마별 과학이바구 잔치



창의융합교육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 행사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미래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축제다.

23회째를 맞이하는 부산과학축전 올해 주제는 ‘부산에 과학이 산다’로 정해졌다. 부산 곳곳에 숨어 있는 내 고장 과학 이야기를 알아보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형태로 꾸렸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 과학자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전시장은 ‘지(지역-과학이바구)’ ‘산(산업-과학이바구)’ ‘학(학교-과학이바구)’ 3개 테마별로 나눠 각각 특색 있는 체험장으로 구성된다.

국립부산과학관, 국립수산물과학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비롯해 기업과 중·고교 대학 소속 과학 동아리 등 총 74개 기관

및 단체가 풍성한 과학축제 마당을 펼친다.

지역-과학이바구는 내 고장 명물 속 과학 원리를 익히는 체험장이다. 강서구 대저 짬짬이 토마토는 물론 부산 대표 음식 어묵과 광안대교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가 전개된다. 장영실 장끼려 우장춘 지식영 등 부산 과학자 업적을 새기고 해시계 제작과 항원-항체반응 이해하기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도 선사한다.

산업-과학이바구는 과학관, 연구소, 기업, 민간단체 등 산업현장과 어우러지는 체험장이다. 하이퍼루프 가상 체

험, 블록 조립으로 꾸미는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직접 접하는 자리다. 과학관은 물론 일선 기업과 민간단체가 ‘부산! 과학특별시’를 기치로 관람객과 체험자들의 흥미를 북돋우는 공간 배치는 주목할 만하다.

학교-과학이바구는 중·고교 대학 소속 과학 동아리 44개 팀 학생들이 꾸리는 과학교육 체험장이다. 부산 과학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3개 테마와 별도로 전문가 강연을 비롯해 과학과 예술을 묶은 융합형 공연 체험장 ‘톡톡 과학이바구’ 코너도 이채롭다.

“‘지’, ‘산’, ‘학’ 과학이바구 3개 주제별 전시관에서
103개의 다양한 체험을 즐겨보세요!”

대표 체험프로그램

- ★ 부산 명물 속 과학
- ★ 부산의 과학자 4인
- ★ 부산과학 길라잡이
- ★ 부산을 일곱빛깔 다리
- ★ 코딩으로 떠나는 부산 여행
- ★ 화이트해커와 블랙해커 미니 대회
- ★ 미래 모빌리티
- ★ 모두를 위한 신경과학&현미경
- ★ 실감형 미래 과학실
- ★ 디지털 AI 체육운동 XR 스포터
- ★ 오늘밤 별자리가 궁금해?

과학강연 및 공연

4월 13일(토)		4월 14일(일)	
11:30 ~ 12:20	우리가 과학을 즐기면 할 수 있는 일	11:00 ~ 12:00	우리는 그래도 지구에 살아야 한다
13:00 ~ 13:50	부산 속 과학 퀴즈대회	13:00 ~ 14:20	엑소셀과 함께 떠나는 지구상 신비한 동물탐험과 우주대탐험
14:30 ~ 15:20	SI와 우리의 삶	14:20 ~ 14:50	엑소셀과 함께 도전하는 과학 골든벨
16:00 ~ 16:30	버블판타지	15:30 ~ 16:00	코믹 사이언스쇼 “빨간망토”
		16:30 ~ 17:00	드로잉 서커스

과학문화거점센터, 2년 연속 ‘최고등급 평가’ 기염

–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지난해 사업평가서, 생활과학교실도 ‘우수’ 차지

부산지역 과학문화 육성을 위해 우리 기관이 펼치는 양대 사업인 과학문화거점센터와 생활과학교실의 지난해 활동성과에 대한 전국 단위 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과학문화거점센터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 판정을 받았으며 생활과학교실도 역시 ‘우수’를 차지한 것이다.

우리 기관이 운영하는 부산과학문화거점센터가 지난 2월 8일 발표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23년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 평정을 받았다.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된 전국 10개 과학문화거점센터가 펼치는 과학문화 육성사업으로, 이번 연차평가에서 2곳만 주는 최고등급 ‘우수’ 기관으로 충북거점센터와 함께 선정됐다. 우리 기관은 지난 2022년도 최고등급에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우수 판정을 받는다.

전국 유일한 기관으로 우뚝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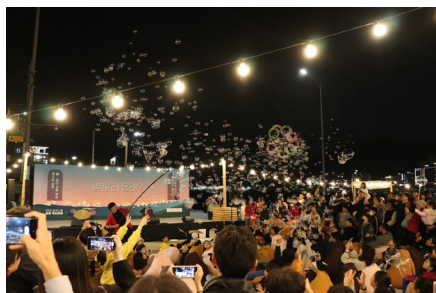
우리 기관에 대한 연차평가 의견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전 목표 설정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지역의 특징(바닷가, 지역특화산업 등)과 지역 내 기관을 잘 활용하여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함 ▷타 지역 대비 전문관련 행사들을 부산지역의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음 ▷실태 조사의 방향이 매우 적절하며 전문인력 양성이 우수함 ▷부산지역 내 특색을 살린 사업(사이언스네트워크데이, 과학축전, 궁리N, 동네방네 사이언스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함 등을 우수한 사례로 꼽았다.

종합 의견란에서 성실하게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평하면서 진행 사업에 비해 전담인력이 부족해 보이니 장기적 비전

수립에 근거해 추가인력 확보를 권유했다. 부산 기반 영화제 등과의 협업 아이디어로 사업 확장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 같은 거점센터 사업 평가에 앞서 지난 2월 7일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23년 생활과학교실 지역운영센터 연차평가’도 발표돼 우리 기관이 전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우수’ 판정을 받았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번 평가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주강사 보조강사 인원비율이 균형 있으며 강사 역량 강화 노력을 잘 제시함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반도체’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등의 우수성을 적시하면서도 ▷특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및 운영은 적절하나 특화프로그램을 매년 확장하여 운영할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함 등을 권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린
송정 별 바다 과학 축제



지난해 9월 동네서점에서 진행된
동네방네 사이언스 북 현장



생활과학교실
[반도체] 사운드 메이커



생활과학교실
그것이 알고싶다 ‘해양편’